

광주 무용의 발자취를 한눈에

광주무용협회, '광주·전남 근현대 무용사' 발간 지역예술계 큰 역할 조대 무용과·호남예술계 실려

지역 문화계의 취약점 중 하나는 방대한 역사를 '재대로' 갈무리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만 6번을 거머쥔 광주·전남 지역은 무용(舞臺)으로 불리지만 지역 무용사 역시 집대성된 적이 없다.

지난해 광주무용협회장으로 취임한 김미숙(조선대 무용과) 교수는 몇년전 지역 무용의 뿌리인 광주 권번의 무용 교육에 대한 글을 준비하다 자료의 중요성을 느꼈다. 특히 광주 권번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역사를 정리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광주무용협회는 올해 광주시로부터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광주·전남 근현대 무용사' 책자를 올해 안에 발간한다. 300페이지를 넘길 예정인 이번 책자는 흠뻑 젖어 있는 광주 지역 무용사를 복원하고 무용인들의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무용협회는 최근 박금자·정혜경·임지형·김미숙씨 등 전현직 협회장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책의 집필은 지역 문화 전문 사이트 '문화통'의 지형원 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악계에 관련한 자료를 오랫동안 모아온 박용재(전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씨, 나인숙(광주무용협회 부회장) 씨 등이 맡았다.

편찬위원회는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광주일보 자료실 등에서 지역 무용계와 관련한 각종 사진과 기사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한국춤박물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쳤다. 또 각종 공연 팸플릿과



1975년 공연 팸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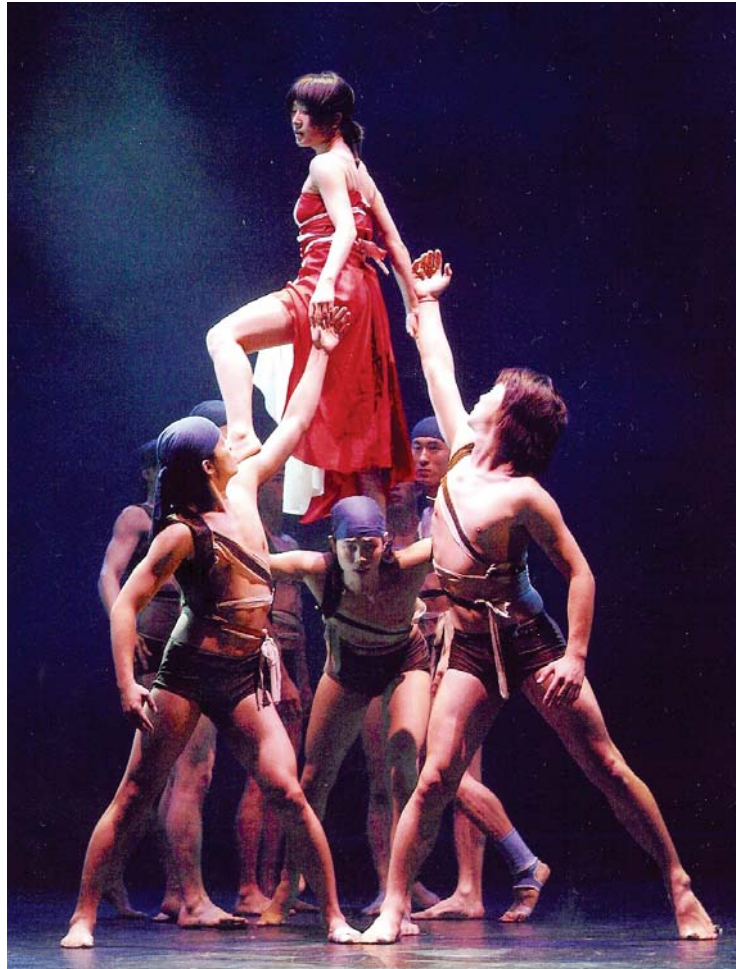
조선대 무용학과에서 나온 관련 석사 논문들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책자는 갑오경장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무용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권번과 광주시립국악원 시절 위세를 떨쳤던 한국무용의 역사와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 무용교육의 역사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현재 지역 무용계가 자리잡고 있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선대 무용과와 무용협회, 시립무용단, 호남예술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1980년대부터 등장한 5월축에 대한 글도 실린다.

1972년 첫 입학생을 받은 조선대 무용과는 지금까지 광주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용인들을 배출했다. 전국 시립무용단 중 유일한 발레단인 광주 시립무용단 역시 지난 1976년 창단 후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발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954년 첫 대회를 연 호남예술제는 지역 무용계를 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임지형·김미숙씨 등 전·현직 광주무용협회장을 비롯해, 김유미씨 등 전·현직 시립무용단장 모두 호남예술제를 통해



광주 무용 역사를 정리한 '광주·전남 근현대 무용사'가 발간된다.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물.밀.꽃.잎'.

무용가로의 꿈을 키웠다.

1953년 오호근씨가 첫 회장을 맡았던 한국무용협회 전남지부 시절을 거쳐 1990년년 공식 출범한 광주무용협회는 송준영, 강화랑, 유예신, 임지형 정혜경, 김미숙씨 등이 회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무용계를 탄탄히 했다. 무용계를 빛낸 인물들에 대한 탐구 작업도 진행된다.

모스크바 유학을 다녀온 후 광주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무용가 옥과일, 1948년 광주극장에서 첫 초정공연을 가졌던 최승희, 서울대 출신으로 강화랑·박금자·엄영자씨

등 지역무용계를 지킨 이들을 키워낸 이경자씨 등 인물들에 대한 글들도 실린다.

한편 광주 지역 미술사는 광주미술협회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전남 근·현대미술 총서'(전3권)라는 책자로 발간됐으면 광주음악협회도 올해 안에 광주음악사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미숙 무용협회장은 "지역 무용사를 정리하는 게 방대한 작업이지만 지역 문화계와 후배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곡부르기 봄나들이 내일 호남신학대

봄내을 가득한 우리 가곡의 매력에 빠져보자.

한달에 한번(매월 둘째주 금요일)씩 함께 모여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봄나들이에 나선다.

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3월 모임의 초청 작곡가는 김진우(중앙대 교수·한국작곡가회 회장)씨로 '나 그대를 위하여'(임승천 시)와 '찾간 속의 그리움'(박원자 시) 등의 곡을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봄'을 소재로 한 곡들이다. '나물 캐는 처녀', '봄채녀', '봄이 오면', '강 건너 봄이오듯' 등 화창시절에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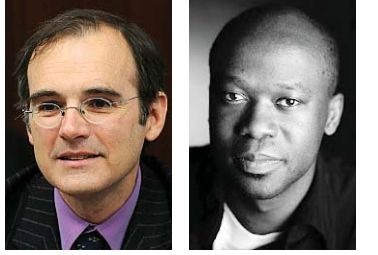
이 볼렷던 곡들이다.

또 소프라노 이한나(조선대 교수·사진)씨는 '신아리랑'과 '새타령'을 들려주며 회원 김건이씨와 양을숙씨가 '봄이 오시는지' 등을 부른다.

회비 1만원(내년 간단한 차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62-575-5999. 010-2694-4592. http://cafe.daum.net/gjkrson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폴리 프로젝트' 외국인 감독 선정되나

전세계 거장 작품으로 조성... 디자인 도시 추진 의도 비엔날레재단, 후보 4명 중 최종 책임자 이달말 결정



배리 버그돌 데이비드 아자예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올해 추진할 '폴리(Folly)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인 총감독을 선정해 진행키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면서 지난해 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인 광주폴리의 전시기획을 총괄했던 승효상 감독은 후보에서 빠졌다.

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광주의 문화 자산이 될 도심 공공시설물인 '2012 폴리 프로젝트'의 전시기획을 총괄할 감독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정키로 하고 후보자들의 접촉에 나섰다.

비엔날레 재단측이 우선 후보군에 올려놓은 인물들은 모두 4명이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건축 부문 수석큐레이터인 배리 버그돌(Barry Bergdoll) 컬럼비아대 건축사학과 교수·건축가·작가·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조셉 그리마(Joseph Grima) 도무스 편집장, 아프리카 탄

자니아 태생의 가나 건축가로 현재 영국건축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데이비드 아자예(David Adjaye),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라는 건물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로 아비타레(Abitare) 잡지사의 디렉터로 유명한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 등이다.

재단측은 사전 접촉을 진행하면서 최종 책임자를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광주 폴리를 전세계 거장들의 작품으로 조성해 세계적 디자인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시이론으로 키워나가자는 취지에서 명망있는 외국인 감독의 총괄 기획 아래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현지 사정과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한국인 큐레이터를 두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우려도 나온다. 우선, 폴리 프로젝트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괄 감독의 전시 계획 및 방향에 따라 기존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불가피해 자칫 주민과의 공감대 부족,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30억 중 15억만 확보된데다, 설치 지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언급된 이들은 우선 후보자로 논의되고 있는 사람들로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외국인 총감독 선정 문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봄의 생명력... 南畵의 생명력

의재미술관, 허백련·허행면 작품전... 내달 30일까지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어디 산과 들에서만 만개할까.

의재미술관이 다음달 30일까지 '남화(南畵)의 생명력'을 주제로 '남화(南畵)의 생명력'을 주제로 소장품전을 열고 첫 봄에 어울리는 의재 허백련과 동생 목재 허행면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른 봄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듯,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매화와 싱싱한 봄 기운이 물어넣는 산수화로 전시장이 그득하다.

1층엔 '격안춘농', '강산무진팔곡일지병풍' 등 산수화로, 2층엔 '군방쟁쟁', '춘풍' 등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와 참새 등 화조화(花鳥畵)로 구성돼 그림 앞에 서면 마음까지 화사해진다.

서로 유사한 화풍을 구사한 듯 하면서도 독자적 감흥이 표현된 작품들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문의 062-222-3040. /김지을기자 dok2000@



허백련 작 '격안춘농'

광주비엔날레 홍보지원 공동 마케팅 업체 모집

(재)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열리는 제 9회 광주 비엔날레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협약사로 선정되면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지원 및 이용객에 대한 상호 요구할인 혜택 등이 제공되고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주비엔날레 홍보나 고객대상 홍보(정구서, SMS 등), 비엔날레 관람객 할인 혜택 등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놀이공원·숙박시설 등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기업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마감은 9일이다.

한편, 비엔날레는 지난 2008년(12개사)을 시작으로 ▲2009년 디자인비엔날레 12개사 ▲2010년 19개사 ▲2011년 디자인비엔날레 16개사 등과 협약을 맺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